

99세 고령에도 식물 연구에 혼신 다하는 김수철교수



올해 99세인 연변대학 농학원 식물학 교수인 김수철(당원)은 현재 연길시 조양천진 삼성촌의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터전에 유기농 채소들을 직접 재배하고 식물 연구와 《길림성식물지》 편찬(한어문 총 6권, 1, 2권은 이미 출판)에 바빠 보내고 있다.

1925년 4월 1일(음력)에 출생한 김수철교수는 현재 허리도 굽고 청력도 무디어 낮은 소리는 듣기 어려워하지만 시력만은 20대 젊은이들도 혀를 잘 만큼 좋아 안경이 없이 살고 있으며 컴퓨터도 세대나 바꾸었다. 두뇌는 젊은이들도 만기 어려울 정도로 명석하고 기억력도 좋아 식물지의 편찬에서 사진이 없는 식물들은 두뇌에 저장된 기억력을 더듬어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도 실감나게 그려 보는 사람들과 찬탄하고 있다.

위해 연변의 장백산 일대와 동북 3성 그리고 내몽골, 안휘, 산둥, 운남, 해남 등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녔고 하루에도 100여리 험준준령을 오르내리며 촬영과 채집에 맘을 흘렸다. 그러다가도 인적이 드문 심산 속에서는 나무가지들을 후려서 간단한 천막을 만들고 그 속에서 휴대한 편의음식에 샘물을 마시며 밤을 지새기도 했다. 못별이 반짝이는 천막 속에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동무하고 대자연의 정기를 받으면서 앞날을 꿈꾸었다고 한다.

식물채집은 두 다리로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채집하여 조심스럽게 매고 다니는 중로동이다. 길이 아닌 길을 뚫으며 진땀을 흘리다가도 희귀한 식물종을 발견할 때면 눈물나게 기뻐했다고 김수철교수는 지금도 가끔씩 그 나날들을 회억하며 행복에 잠기곤 한다. 그렇게 수십년을 전국 각지에 발자취를 남기고 풍찬로숙하며 고생한 끝에 김수철교수는 야생식물에 관한 표본 2만 5,000여종이나 채집하여 국가에 막대한 자연자원 명세표를 제공했다.

조선어, 한어, 일어, 영어, 로어(영어와 로어는 자습으로 익힘) 등 언어문자를 장악한 김수철교수는 《장백산식물》, 《연변식물》, 《경제식물》, 《연변식물도색지(총 3권)》, 《길림성식물지(총 6권)》 등 28종의 저서와 논문들을 한어, 영어, 일어, 로

어로 출판하여 세계 식물권위인사들의 긍정과 찬양을 받았다.

국내외의 식물학자들과 공동으로 써낸 식물 관련 책자와 논문들도 많다. 퇴직전에는 ‘모범공산당원’, ‘길림성로력모범’의 영예도 받았다.

김수철교수의 식물 인연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결음마를 타기 시작한 5, 6세 때부터 김수철교수는 둘째할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들이를 하곤 하였는데 길거리의 풀을 보면 무슨 궁금궁이 동했던지 이것저것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직접 풀잎을 뜯어 할머니에게 보이며 식물의 이름을 묻기 좋아했다. 년세가 많으셨던 둘째할머니는 마을 주위의 풀들에 대해 기본상 알고 있어 묻는 족족 망설임이 없이 알려주었다. 그렇게 배운 덕이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식물 신동이였는지 12세가 되던 해에는 소학교 전 학급 학생들 중에서 식물명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 동학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식물 사랑이 한평생 식물 교수의 길을 걷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김수철교수는 연변대학 농학원에 출근한 약 40년간 도시생활 1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학원 부근의 농촌에서 살았다. 퇴직후에는 식물학 연구를 위해 연길시 조양천진 삼성촌의 시골 낡은 집을 구매했고 수간하여 살면서 일상적으로 사진기를 매고 산에 올라 식물과 버섯을 촬영하면서 식물 연구

를 계속하고 있다.

터전도 꽤나 넓어 봄이면 자식들을 불러다 술선수범하여 농사를 짓는데 올해도 레외없이 이미 남새 등의 봄파종을 끝내고 있다.

마음씨 고운 김수철교수는 항상 소박하고 겸손하며 욕심을 버리고 영예와 명예는 항상 남에게 양보하여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애대를 받고 있다. 국내외에서 장백산 식물로 두 사람 이상 합작하여 편찬한 서적과 논문은 언제나 편집인 명단 순위에 자기 이름을 뒤에 놓게 하는 겸손과 미덕을 보였다.

지금 김수철교수는 년세가 이미 100세 고령이 되어가지만 쉬려 하지 않고 계속 산에 올라 계절에 따른 시절 식물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각종 버섯들을 사진 찍는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생각 밖의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9월 중순의 어느 날, 김수철교수는 버섯을 촬영하려고 산속 깊숙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이를 밤이나 모야산 북쪽 산비탈에서 밤을 지냈다. 당시 기온은 영상 10도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저온이 김교수의 생명안전을 위협했다. 새벽에 내린 이슬로 옷은 축축하게 젖어있었고 제때에 식사를 하지 못해 허기가 심했다. 김수철교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에 있는 썩들을 꺾어 몸 주위에 둘러 보온을 하고 아직 여름이 아닌 늦가을을 따서 생식하며 용케 허기를 달랬다.

생사가 걸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촬영한 자료가 잘못될까봐 가방에 사진기를 잘 넣어 나무 곁에 숨겨놓았는데 결국 사진까지 찾지 못했다. 김수철교수는 사진기보다 애써 촬영한 귀중한 사진자료를 잃어버린 일에 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후, 김수철교수는 또 새 사진기를 구입해 계속 산에 오르고 있다.

이런 김수철교수를 자식들은 서로 모셔가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은 너희들 신세를 보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고 있다. 40여평방미터의 집안 벽쪽에 있는 이불 몇채, 컴퓨터와 복사기, 책색텔레비죤, 그리고 책장을 가득 채운 각종 서적들과 자료들이 김수철교수의 전부 재산이다.

그는 자연과 더불어 아침에 뜨는 해를 반기고 저녁에 지는 해를 손짓하며 새들의 노래소리와 들팽의 울음소리를 감상하면서 세기의 년륜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 김수철

90대 로전사가 들려주는 혁명전통 이야기



김응진할아버지가 전투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전, 연길시 복산가두당위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책임감으로 연변군대 간부휴양소 91세 고령의 로전사 김응진할아버지를 모시고 연하소학교 학생들을 위해 한차례 뜻깊은 혁명전통교양 활동을 조직했다.

로전사 김응진할아버지는 가렬처절했던 항미원조전쟁에서 수많은 전사들이 적들의 포화 속에서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이어가며 목숨 바쳐英勇하게 싸운 혁명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두 눈에 눈물이 고인 김응진할아버지는 70여년전에 희생된 전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응진할아버지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가정생활이 부유해진 지금의 이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뉘뉘이가 훌륭

한 인간으로 자랄 것을 학생들에게 바랐다.

김응진할아버지의 항미원조전쟁 이야기는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 생동하고 중요한 한차례의 혁명전통교양 수업이었다.

연하소학교 4학년 10중대 라이나 학생은 혁명선배들의 사적을 참답게 학습하고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학습에 게을리하지 않으며 동학간에 서로 단결하여 훌륭한 학생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복산가두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부주임 손봉심은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英勇히 싸운 혁명렬사들의 정신을 본받아 열심히 학습하고 부모와 선생님을 존경하는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여 중국꿈의 실현에 기여할 것을 학생들에게 부탁하였다.

/ 리성복특약기자

90 바라보는 아들 120세 엄마가 보고 싶구나!

내 나이 90을 바라보지만 가끔씩 자식 사랑에 대한 엄마(유준, 1904년생)의 그 고매함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를 애수에 잠기게 한다.

내가 소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다.

어느 여름날, 포래들과 같이 고기잡이를 한답시고 반나절이나 강변에서 돌아왔지만 주전자 밑굽에도 차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 보고 고기를 얼마 못 잡았다고 여쭙고는 마당에 쏟아버렸다.

근 10여일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날은 밥째죽부터 하였다. 엄마는 조금만 기다리라며 연압새에서 말린 물고기꼬치를 가져다가 화로불에 구워서 밥반찬을 하라며 건네주

는 것이었다.

구운 물고기는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게 어찌나 맛있던지 지금 생각해도 군침이 돈다. 큰 고기를 골라서 엄마에게 드렸더니 받아서는 도로 고기그릇에 놓으시면서 “꾸우면서 먹었으니 너나 많이 먹어라.”라며 사양하시는 것이었다.

그때에는 엄마여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이런 것이 엄마들만 소유한 위대하고도 고상한 모성애이며 모든 것을 자식 성장과 사랑에 몰부는, 이 세상 엄마들만이 소유한 품성이리라!

위대한 어머니들 만세!

/ 리진옥

저세상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5월 12일은 ‘어머니의 날’이구나.

이날 따라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김택원, 1930년생)가 보고 싶다!

식구 11명의 대가정의 집을 짊어진 로공산당원, 훌륭한 부녀주임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지! 14세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 가정 일귀 슬하에 자식 6남매 낳아 열심히 키워서 큰아들과 막내아들, 그리고 작은딸까지 참군시켜 나라에 공헌하였으며 자식 공부 시키느라고 힘들었지만 언제 한번 불평하는 걸 볼 수 없었던 어머니시다!

셋째, 넷째 삼촌이 해방전쟁에 입대하여 항미원조전쟁까지 나가자 매일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을 기다리며 밤도 안 드시고 울고 계시는 할머니를 위로하라, 큰삼촌이 돌아가면서 남긴 자식까지 키워라, 어머니는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시었다.

일터에서는 누구보다 돌출하였으며 항상 우수공산당원, 로력모범, 선진사업자, 모택동적자 학습표범으로 표창받았다. 부녀사업을 하다 보니 집집의 가정모순이 발생하여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밤잠을 설치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웃들이 거의 매일이다 싶이 그릇을 들고 쌀, 된장, 간장, 소금이 없다고 찾아와도 우리 때거리는 녀두에도 없고 그릇 채워서 보내셨지.

항상 자식들에게 인간의 삶의 도리를 행동으로 보여준 참 훌륭한 어머니셨지.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지요?! 어머니 자식과 손글들 모두 어머니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시요.”

—큰딸로부터

/ 리성복특약기자

북방소수민족 제 7 회 ‘장수컵’ 게이트볼경기 료녕 안산에서



전민건강에 관한 당중앙의 지시 정신을 기층에 시달하고 소수민족 게이트볼운동을 추진시켜 민족공동체 건설에 새로운 기여를 하는 것을 취지로 한 북방소수민족 제 7 회 ‘장수컵’ 게이트볼경기가 5월 11일, 료녕성 안산시조전족소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게이트볼경기에 동북 3성 여러 시, 현과 광둥성 심주시, 산둥성 연태시 등 지역의 25개 게이트볼팀의 선수 그리고 감독, 심판원 등 인원을 포함해 총 150여명이 참가했다.

게이트볼운동은 단합된 힘과 재치 있는 기술을 발휘하여 대방을 전송하는 운동으로 많은 체육애호가, 특히는

로인들이 즐기는 체육활동이다. 하기에 이번 게이트볼경기의 주최단위인 안산시조전족게이트볼협회회는 자금이 딸리고 시간이 긴박한 등 곤난을 무릅쓰고 규범화한 두개 게이트볼장을 새로 건설했다. 이에 안산시조전족경제교류협회 김종철 부회장과 과좌후기 신아회사 허문남 사장이 각각 3만원씩 협찬하고 10여명에 달하는 사회의 자생인들이 약 2만여원의 자금을 모금하여 보내주었다.

이날 개막식에서 북방소수민족게이트볼친목회 광명준 회장은 여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게이트볼운동을 견지한 10년의 로정을 회고하면서 “만남은 잠시적이지만 소통과 약속의 정은 백세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게이트볼경기의 주최단위 책임자인 안산시경제개발구 달도만가두판사처 마일명 주임도 게이트볼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열렬히 축하했다.

이틀간의 각축 끝에 최종 산둥성 연태시팀이 우승을 하고 길림성 반석시팀과 흑룡강성 녕안시팀이 공동 2등, 흑룡강성 해림시 1팀이 4등을 하였으며 료녕성 안산시 3팀, 심양로인협회팀, 연변조전족자치주 화룡시팀과 연길시 간공팀이 5등을 했다.

한편, 제 8회 북방소수민족게이트볼경기는 래년에 산둥성 연태시에서 열리게 된다. / 리삼민특약기자